

## 한부모 모자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실태조사: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진아<sup>†</sup>

남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빈곤층(6149명), 차상위 계층(17699명), 그리고 차상위 이상 계층(17931명)의 각 계층별로 부모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모자가정 3-5세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모-자녀관계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며,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우울하고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가 알코올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과 관련하여 차상위 이상계층 어머니가 학대와 방임을 가장 높게 보였다. 애착과 관련된 분리반응에서는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가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느끼는 반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유아는 어머니와의 분리나 분리 이후의 재회 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이 길수록 모든 계층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한 반면, 차상위 이상 계층은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원이 많을 경우 빈곤층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이 감소한 반면, 차상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의 우울 및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인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많고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과 알코올 의존도,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이혼, 빈곤층, 차상위 계층, 유아 문제행동, 우울, 알코올 의존, 학대, 방임, 모-자녀관계

\*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된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2009)를 토대로 분석되었음

† 교신저자 : 박진아,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

Tel : 041-580-2477, Email : pjinah1230@nsu.ac.kr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2008년 통계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총 116,500건의 이혼 보고 건수를 보여 하루 평균 321쌍의 부부가 이혼 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더욱이 2008년 이혼가정 중 54%인 63,000쌍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수를 종합해보면 총 141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다(박경자, 최혜영, 한준아, 2009).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수를 고려해볼 때, 이혼은 일상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이혼을 ‘불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행복의 추구’이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도 좋다’라는 인식이 만연화되고 있다(최상진, 금은미, 차영란, 2006). 그러나 가족중심주의가 강한 유교적 한국문화 속에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결혼해체이자 가정의 해체, 즉 결손가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것이며 부모 또한 심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이혼가정 유아와 부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양부모 가정과 부모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이나 발달문제, 또는 한부모의 정신건강 및 사회부적응 등과 관련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혼가정의 아동은 일반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조경미, 주혜주, 2003)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순형, 이옥경, 민

미희, 2006; 정지연, 한유진, 2007)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살과 알코올 중독(Gove, Carolyn, & Michael, 1990),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문제(이영문, 김홍모, 이문숙, 이호영, 1999; Gucciardi, Celasun, & Stewart, 2004), 그리고 히스테리, 편집증, 건강염려증 등의 병리수준이 더 높은 것(이경숙, 정영숙, 박진아, 20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이혼 여성 각각의 단편적인 개인 심리건강을 살펴보았을 뿐, 자녀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모-자녀관계 측면까지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의 총체적 정신건강을 면밀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혼이라는 중대한 가정적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의 유아와 어머니의 동일 쌍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아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 그리고 어머니 정신건강 관련변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혼 후 부부간 갈등과 부부관계는 소멸되더라도 모-자녀관계는 지속되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 형태로 변화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와 자녀양육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채 자녀와 갑작스럽게 결별하게 되는 아버지로 나누어지는 등 새로운 부모자녀관계가 재정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부재 속에서 자녀양육을 혼자 담당해야한다는 부담감, 자녀 측면에서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Wallerstein, 1985), 즉 유기공포(Kurdek & Berg, 1987)에 사

로잡혀 모-자관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정신건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자녀관계 측면까지 확장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변인들을 토대로 유아의 정신건강은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문제, 정서조절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측면에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우울과 알코올 의존 측면에서, 그리고 모-자녀관계는 유아의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분리 시 반응과 재회 시 반응 등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및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포괄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을 사회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이상 계층으로 구별하여 각 계층별로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이혼 후 각 계층별로 아동의 욕구와 적응적 과제가 달라지게 되기(최혜영, 2009)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혜영, 2009; Amato, & Keith, 1991) 중요 변인이다. 이러한 가설은 중단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는데, Osborn(1990)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5-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부모의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양육태도가 열악한 가정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계층을 선별하여 저소득층 이혼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표집의 편의성을 토대로 중상층 이혼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한 계층 내에서의 정신건강을 탐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혼이라는 생활사건은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경희와 김기중(2004)은 이혼 가정 여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있는 이혼 가정 여성 구성원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더욱이 빈곤층 뿐 아니라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까지 사회경제적 계층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부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경제적 각 계층 별로 미시적 관점을 토대로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어떠한 정신건강 측면에 구체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이혼 대 비 이혼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차이를 단편적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각 계층 별로 유아와 어머니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표집의 대표성과 연구결과  
의 일반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  
부에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가중치를 토대  
로 전국 규모로 실시하여 제공한 한국 아동청  
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2009) 중 한부모 모  
자가정을 선별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  
가 동일하게 이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계층 유형별로 정신건강과 모-자  
녀관계의 어떠한 측면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  
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가 추  
후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정책적 지원  
서비스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전국규모로 실시되고 2009년 자료가 공개된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대상 총  
11,349,376명<sup>1)</sup> 중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주양  
육자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빈곤층(6149명), 차상위 계층(17699

명), 그리고 차상위 이상 계층(17931명)<sup>2)</sup> 어머  
니 총 417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  
상의 평균연령은 40.42(SD=12.19)세였으며, 자  
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학력의 경우 차상위 이상계층은 대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차상위 계층과 빈곤층의 경  
우 고졸이하가 대부분이고, 특히 초등졸의 학  
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의 경우 차상위와 빈곤층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에 비해 실업인 경우가 더 높았으며, 근  
로형태도 시간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  
이후 자녀양육기간은 빈곤층이 제일 길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빈곤층이 제일 낮게 나타났  
다. 사회적 지원과 전배우자로부터의 경제지  
원은 차상위 이상 계층이 제일 많은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유아의 정신건강

유아의 정신건강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1  
문항(‘우리 아이는 예민하고 까다롭다’)과 더딘  
기질 1문항(‘우리 아이는 더디다. 예;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  
재화 문제행동 2문항(‘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과 외  
현화 문제행동 2문항(‘우리 아이는 남들과 충  
돌하거나 싸운다’,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  
거나 남들을 속인다’), 그리고 정서조절 1문항

1)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하여 제공한  
원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한 것이며,  
전체 연구대상의 전국적인 표집과정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4단계 가중치 산정기준 및 인구  
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아동청소  
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09)에 자세히 제시되  
어있음.

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09)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를 기준으로 빈곤층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층은 최저 생계비 100-  
120%, 차상위 이상 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  
초과로 구분하였음.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 41779)

		빈곤층 (N=6149)	차상위 (N=17699)	차상위 이상 (N=17931)	$\chi^2$
		빈도(%)	빈도(%)	빈도(%)	
학력	무학	0(0)	887(100)	0(0)	7287.02***
	초등졸	287(38.1)	467(61.9)	0(0)	
	중졸	647(100)	0(0)	0(0)	
	고졸	4349(16.5)	11374(43.3)	10557(40.2)	
	전문대졸	415(10.6)	1816(46.3)	1693(43.1)	
	대졸	451(4.9)	3155(34.0)	5681(61.2)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3061(11.8)	12477(47.9)	10483(40.3)	8425.42***
	자영업직	128(1.9)	786(11.9)	5683(86.1)	
	실업	2518(40.1)	1990(31.7)	1765(28.1)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1425(11.5)	5885(47.4)	5111(41.1)	7.70*
	전일제	1636(12.0)	6592(48.5)	5372(39.5)	
전배우자 만남유무	만남	1914(16.2)	4122(34.8)	5793(49.0)	673.19***
	만나지 않음	4237(15.1)	13578(48.4)	10237(36.5)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
근로소득 (만원)		44.6(49.4)c	80.1(45.7)b	162.9(97.5)a	8666.50***
이혼 후 양육시간 (년)		2.98(1.53)a	2.74(1.38)b	2.30(0.80)c	886.11***
사회적 지원		7.66(2.82)b	6.88(2.18)c	9.09(2.46)a	3798.71***
전배우자 경제지원(만원)		1.83(8.64)b	0.84(6.42)c	22.46(41.73)a	3014.41***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 $p < .05$ , \*\*\* $p < .001$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었을 때, 화가 나지만 참는다’) 등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내재화 문제행동 .56, 외현화 문제행동 .40으로 나타났다.

항, 알코올 의존정도(한 주당 알코올 섭취 횟수와 1회 알코올 섭취량의 합산점수)를 측정하여 탐색하였다. 우울 척도의 경우 우울증상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다’에서부터 ‘대부분 그랬다’까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58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정신건강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어머니의 우울 11문

### 유아와 어머니 간 모-자녀관계

유아와 어머니 간 관계 측면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학대 3문항(‘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이의 몸을 때린 적이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적이 있다’, 4점 리크트식 척도)과 방임 1문항(‘지난 6개월 동안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다’, 3점 리크트식 척도), 유아의 분리불안(‘우리 아이는 엄마와 떨어질 때 울거나 떼를 쓴다’, 4점 리크트식 척도), 유아의 분리반응과 분리 후 재회반응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문항은 모두 어머니 보고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대 3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60로 나타났다.

#### 가정환경 변인

한부모 가정의 가정환경 관련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금액, 전 배우자와 자녀와의 만남 유무,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서 경제적 지원,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양육관련 정보 도움의 총 4개 문항, ‘전혀 받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까지 4점 리크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75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관련변인 및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별로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연구결과

####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차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니 양육가정 유아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곤층,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이상계층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정신건강과 어머니의 정신건강 영역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정신건강 영역은 유아의 기질문제(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정서조절로, 어머니의 정신건강 영역은 우울과 알코올 의존정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문제는 차상위 계층이, 더딘 기질의 문제는 차상위 이상 계층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모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계층은 빈곤층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서조절 문제를, 빈곤층은 차상위 계층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신건강의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이 더 빈번하

표 2.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차이검증

		빈곤층 (n=6149)	차상위 (n=17699)	차상위 이상 (n=17931)	F	
		M(SD)	M(SD)	M(SD)		
유아	기질	까다로운 기질	1.96(0.79)c	2.28(0.57)a	2.07(0.72)b	732.87***
		더딘 기질	1.89(0.69)c	2.31(0.55)b	2.41(0.67)a	1599.34***
정신 건강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3.89(1.26)c	4.10(0.95)b	4.42(1.01)a	758.96***
		외현화 문제행동	3.42(1.00)b	3.38(0.93)c	3.71(0.77)a	691.89***
	정서문제	정서조절	2.60(0.71)a	2.39(0.62)c	2.49(0.50)b	307.89***
어머니	우울	24.25(5.86)a	23.18(4.47)b	21.86(2.95)c	904.40***	
정신건강	알코올 의존	5.07(1.84)b	5.57(1.49)a	5.52(0.75)a	198.80***	

주. 정서조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문제가 적음을 의미함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 $p < .001$

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유아와 어머니 간 모-자녀관계의 차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니 양육가정 유아와 어머니 간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부모자녀간 애착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 양육에 있어 학대의 경우 차상위 이상과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방임의 경우에는 차상위 이상 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분리시 유아가 느끼는 불안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 자녀가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분리시 유아가 보이는 분리반응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은 부모와 분리시 유아가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는 저항형의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반면, 차상위와 빈곤의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의 분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분리 이후 재회 시 반응의 경우, 차상위 이상 계층의 자녀는 울거나 칭얼대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차상위와 빈곤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와의 재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와 어머니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경제적 각 계층별로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 사회적 지원,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정도, 전 배우자(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 여부 등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3.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차이

		빈곤층 (n=6149) M(SD)	차상위 (n=17699) M(SD)	차상위 이상 (n=17931) M(SD)	F
분리문제	분리불안	1.93(0.76)c	2.14(0.89)b	2.33(0.99)a	487.32***
자녀양육	자녀학대	5.45(1.81)a	5.26(1.77)b	5.44(1.36)a	65.76***
	방임	1.33(0.52)b	1.34(0.51)b	1.61(0.65)a	1127.10***
		빈도(%)	빈도(%)	빈도(%)	$\chi^2$
분리반응	웃으며 인사함	3090(16.4)	7178(38.2)	8545(45.4)	6561.10***
	심하게 울고 떼쓰	382(9.6)	0(0)	3594(90.4)	
	울지만 진정됨	2161(12.5)	9314(53.9)	5793(33.5)	
	별다른 반응 없음	517(36.2)	912(63.8)	0(0)	
	잘 모르겠음	0(0)	296(100)	0(0)	
재회반응	웃으며 반김	5777(16.3)	15394(43.4)	14265(40.3)	2930.94***
	울거나 칭얼댐	63(1.2)	1690(31.2)	3666(67.7)	
	별다른 반응 없음	310(49.3)	319(50.7)	0(0)	
	잘 모르겠음	0(0)	296(100)	0(0)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 $p < .001$

빈곤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기질문제( $r = -.07, p < .001$ ), 내재화( $r = -.13, p < .001$ ) 및 외현화 문제행동( $r = -.15,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07, p < .001$ )과 자녀학대( $r = -.24, p < .001$ ) 및 방임( $r = -.20, p < .001$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문제( $r = -.13, p < .001$ ), 정서조절 문제( $r = .08,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27, p < .001$ ), 자녀학대( $r = -.10, p < .001$ ) 및 방임( $r = -.15, p < .001$ )이 감소되었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문제( $r = -.26, p < .001$ ), 내재화( $r = -.18, p < .001$ ) 및 외현화 문제행동( $r = -.16, p < .001$ ), 분리불안( $r = -.18,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15, p < .001$ ) 및 알코올 의존( $r = -.07, p < .001$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 $r = .19, p < .001$ ), 내재화 문제행동( $r = .06, p < .001$ ), 정서조절 문제( $r = -.22, p < .001$ ), 분리불안( $r = .13, p < .001$ ),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r = .12, p < .001$ )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r = -.08,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 $r = -.07, p < .001$ ), 자녀학대( $r = -.12, p < .001$ ), 방임( $r = -.08, p < .001$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더딘 기질문제( $r = -.22, p < .001$ ), 내재화( $r = -.07, p < .001$ ) 및 외현화 문제행동( $r = -.02,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24, p < .001$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

표 4. 빈곤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2	1												
3	-.01	-.04**	1											
4	.16***	-.17***	-.23***	1										
5	-.07***	-.13***	-.26***	-.08***	1									
6	-.07***	.02	-.07***	.19***	.13***	1								
7	-.13***	-.02	-.18***	.06***	.43***	.15***	1							
8	-.15***	.14***	-.16***	-.07***	.34***	.14***	.62***	1						
9	-.00	.08***	-.02	-.22***	-.13***	-.18***	-.08***	-.01	1					
10	-.07***	-.27***	-.15***	.02	.19***	-.07***	.13***	.12***	-.01	1				
11	.01	.03	-.07***	.12***	.25***	.08***	-.13***	-.11***	-.28***	.08***	1			
12	-.24***	-.10***	.15***	-.12***	.16***	.03*	.08***	.22***	-.14***	.17***	.19***	1		
13	-.20***	-.15***	-.02	-.08***	.08***	.05***	.15***	.19***	-.19***	.04**	.15***	.31***	1	
14	.03*	.00	-.18***	.13***	.39***	.18***	.36***	.26***	-.17***	.06***	.19***	.13***	-.08***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의 만남 유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 $p < .01$ , \*\*\* $p < .001$

의 까다로운 기질( $r=10, p < .001$ ), 정서조절( $r=.18, p < .001$ ), 분리불안( $r=.16, p < .001$ )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r=.20, p < .001$ ), 자녀학대( $r=.16, p < .001$ ), 방임( $r=.32, p < .001$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r=-.14,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 $r=-.05, p < .001$ ), 분리불안( $r=-.21,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10, p < .001$ ), 방임( $r=-.25, p < .001$ )이 감소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r=.25, p < .001$ ), 알코올 의존( $r=.03, p < .001$ ), 학대( $r=.36, p < .001$ )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 $r=-.07/-07, p < .001$ ), 내재화 문제행동( $r=-.15,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12, p < .001$ ), 방임( $r=-.02, p < .01$ )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r=.09, p < .001$ ), 분리불안( $r=.06, p < .001$ ),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r=.17, p < .001$ ), 학대( $r=.17, p < .001$ )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 $r=.09, p < .001$ ), 내재화 문제행동( $r=.12, p < .001$ ),

표 5.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11***	1												
3	.21***	.31***	1											
4	-.03***	.04***	-.24***	1										
5	.10***	.25***	-.07***	-.16***	1									
6	-.22***	-.01	-.07***	.09***	.49***	1								
7	-.07***	-.14***	-.15***	.12***	-.31***	-.32***	1							
8	-.02***	-.05***	.09***	.03***	-.38***	-.31***	.63***	1						
9	.18***	-.15***	-.08***	-.01	-.24***	-.15***	.13***	.08***	1					
10	-.24***	-.10***	-.12***	.22***	-.08***	.37***	-.09***	-.25***	-.21***	1				
11	.20***	.03***	.17***	-.11***	-.64***	-.16***	-.31***	.02*	.08***	.15***	1			
12	.16***	-.21***	.06***	.19***	-.47***	-.16***	.63***	.59***	.17***	.18***	.22***	1		
13	.16***	.36***	.17***	.05***	.31***	.36***	-.53***	-.42***	.23***	-.05***	.26***	-.27***	1	
14	.32***	-.25***	-.02**	-.17***	-.28***	-.14***	.51***	.30***	.15***	-.14***	.30***	.61***	-.33***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의 만남 유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 $p < .01$ , \*\*\* $p < .001$

.001), 외현화 문제행동( $r = .03, p < .001$ ), 분리불안( $r = .19,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22, p < .001$ ), 학대( $r = .05, p < .001$ )가 증가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r = -.16, p < .001$ ), 어머니의 알코올 의존( $r = -.11, p < .001$ ), 방임( $r = -.17, p < .001$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 $r = -.05/-0.45,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 $r = -.33, p < .001$ ), 분리불안( $r = -.31,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71, p < .001$ ), 알코올 의존

( $r = -.17, p < .001$ )이 감소하는 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r = .37, p < .001$ ), 학대( $r = .64, p < .001$ ), 방임( $r = .17, p < .001$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까다롭거나 더딘 기질( $r = -.78/-0.09,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 $r = -.03, p < .001$ )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r = .60,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18, p < .001$ ), 알코올 의존( $r = .50, p < .001$ ), 학대( $r = .68, p < .001$ ), 방임( $r = .55, p < .001$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표 6. 차상위 이상계층 한부모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 및 어머니 정신건강 간 상관계수

	가정환경 변인				유아의 정신건강				모 정신건강		모-자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42***	1												
3	-.22***	.64***	1											
4	.57***	-.17***	-.77***	1										
5	-.05***	-.78***	-.80***	.46***	1									
6	-.43***	-.09***	.48***	-.65***	-.12***	1								
7	.37***	.60***	.31***	-.25***	-.62***	-.07***	1							
8	-.33***	-.03***	.20***	-.30***	-.50***	.23***	.43***	1						
9	.18***	-.28***	-.52***	.18***	.45***	-.05***	.18***	.13***	1					
10	-.71***	.18***	.75***	-.76***	-.60***	.39***	-.06***	.43***	-.53***	1				
11	-.17***	.50***	.49***	-.43***	-.80***	.06***	.48***	.47***	-.67***	.56***	1			
12	-.31***	.25***	.62***	-.47***	-.60***	.61***	.13***	.67***	-.04***	.67***	.33***	1		
13	.64***	.68***	.33***	-.15***	-.57***	-.29***	.68***	-.02***	-.01	-.07***	.74***	-.01	1	
14	.17***	.55***	.36***	-.10***	-.22***	-.03***	.29***	-.24***	-.12***	-.10***	-.67***	-.06***	.06***	1

가정환경 변인(1. 이혼 후 양육기간; 2. 사회적 지원; 3.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4.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 유무, 만남 1, 만나지 않음 2, dummy coding), 유아의 정신건강(5. 까다로운 기질; 6. 더딘 기질; 7. 내재화 문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9.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신건강(10. 우울; 11. 알코올 의존), 모-자녀관계(12. 분리불안; 13. 학대; 14. 방임)

\*\*\* $p < .001$ .

수록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r = -.80, p < .001$ )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더딘 기질( $r = .48, p < .001$ ), 내재화( $r = .31, p < .001$ ) 및 외현화 문제행동( $r = .20,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75, p < .001$ ), 알코올 의존( $r = .49, p < .001$ ), 학대( $r = .33, p < .001$ ), 방임( $r = .36, p < .001$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전 배우자인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경우, 유아의 더딘 기질( $r = -.65, p < .001$ ), 내재화 문제행동( $r = -.25,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 $r = -.30, p < .001$ ), 분리불안( $r =$

$-.47, p < .001$ ), 어머니의 우울( $r = -.76, p < .001$ ), 알코올 의존( $r = -.43, p < .001$ ), 학대( $r = -.15, p < .001$ ), 방임( $r = -.10, p < .001$ )이 감소되는 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r = .46, p < .001$ )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빈곤층, 차상위층, 차상위 이상

계층 각 계층 유형별로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어머니 양육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차상위 이상 계층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의 유아는 까다로운 기질문제와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서조절 문제, 빈곤층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더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가 다양한 문제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주소희, 2003; 정지연, 한유진, 2007; Amato & Keith, 1991; Blennow, & McNeil, 1981)들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기질과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Ventura와 Stevenson(198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부모 뿐 아니라 자녀인 유아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 사건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은 부모 이혼이 야기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과도하게 예민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후 당장 생존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적으로 안정된 차상위 이상 계층의 한부모 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더 민감하게, 혹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대상의 경제적 상황에서 차상위 이상 계층의 한 달 근로소득(162만원)이 빈곤층(44만원)에 비해 약 3배, 차상위 계층(80만원)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더 많았으며, 대부분 학력도 대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차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의 실질적인 문제행동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높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부모의 이혼 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열악한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는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에 비해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가, 부모이혼 과정에서 더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의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비양육자인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주변 또래와는 달리 부모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감 등의 감정의 혼란을 과도하게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 시간이 빈곤층에 비해 많은 중상층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러한 자녀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외부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차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 및 상담 프로그램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이혼, 이혼과정에서의 심리적 부적응, 이혼 이후의 환경적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 적응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보다 심리적 갈등에 중점을 둔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차상위 계층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서조절 문제, 빈곤층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는 지엽적으로 차상위 계층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정서조절문제, 빈곤층부모의 경우 공격성이나 주의산만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며, 주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더욱 맞춘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 정신건강의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더 우울하게 나타나 빈곤층 어머니가 가장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이 더 빈번하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이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경숙, 진미경, 정영숙(2007)의 연구결과, 그리고 중상층 이혼 여성에 비해 경제적, 물리적 취약 환경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심리적응상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정지연과 한유진(2007)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이혼 후 어머니는 분노와 상실감, 지가비난, 후회감, 죄의식과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혼으로 인한 가정 내 경제적 자원의 감소는 한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더 낮아지게 만드는 위협요인이 된다. 즉, 이혼으로 인한 모든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는 이혼과 관련

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학력과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 이상 계층에 비해 차상위 계층 어머니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빈곤층 어머니 또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부분적일지라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차상위 이상계층 어머니에 비해 학력 등의 문제로 실업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빈곤층 어머니의 우울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층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문제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빈곤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이혼 가정 어머니가 상담에서 가장 원하는 도움이 경제적 원조라는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과 김수리(2006)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볼 때 경제적 원조와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서비스(예; 주거 안정성 확보,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 등)가 포함된 우울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한부모 가정 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학대와 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와 분리시 유아가 심하게 울거나 떼를 쓰며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가 자신에게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양육행동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경숙, 강현주, 이선우, 2005; 이경숙, 정영숙, 박진아,

2005; McLeod & Shanahan, 1993)들과 다소 상반된 결과로서,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이라는 문혁준(2001)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비해 차상위 이상의 중상층의 경우 부모의 이혼은 급격한 가정 및 환경적 변화를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혼자 담당하게 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혼이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정신적 결합이나 인격적 장애로 인한 가정해체로 간주되며(이종한, 이윤희, 2000) 이혼 후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는 자녀를 더욱 엄격하게 훈육하고 자녀의 잘못에 비해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가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차상위 이상 계층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제 어머니가 양육에서 보이는 학대와 방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측정과 주변 성인의 보고를 종합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대와 방임의 측정이 학대 3문항, 방임 1문항 등 어머니 설문에 의한 간단한 지필식 검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차상위 이상 계층의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 시 분리불안을 가장 높게 보인 것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부모간 갈등, 이혼 후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부모의 이혼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며 어머니로부터 버

림받았는지 모른다는 유기공포(Kurdek & Berg, 1987)와 두려움(Wallerstein, 1985)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에 차상위와 빈곤 등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와의 분리에, 그리고 분리 이후 재회 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1969)의 생애 초기 영아와 양육자간 관계에서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인 애착개념, 그리고 Zeanah와 Boris(2000)의 애착장애 개념을 토대로 살펴볼 때 매우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결과이다. 애착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과 홍현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애착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경우 애착대상과의 분리에서 불안을 보이지 않는 회피적 애착유형이나 비조직화되고 비정형화되 비일관적인 애착반응을 보이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차상위 계층의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결합 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머니 이외의 다른 성인에 대한 무분별한 애착행동을 보일 경우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높은 비조직적/비정형화 애착장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단지 애착반응을 토대로 애착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 정신건강을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저소득층의 사회 및 경제적 가정환경 취약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 유아가 보이는 애착반응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으며, 어머니와 자녀간 애착관계 개선과 증진을 위한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경제상황 개선에만 전력을 추구하고 있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머니에게 자녀와의 애착관계 측면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애착이론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애착측정은 분리와 재결합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반응에 대한 지필식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추론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 저소득층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Ainsworth, Blear와 Waters (1978)의 낯선상황실험절차 Strange Situation Procedure,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의 애착이야기완성과제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그리고 Zeanah, Benoit와 Barton(1986)의 내적작동모델인터뷰 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등과 같은 관찰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각 계층별로 이혼 후 자녀 양육기간, 사회적 지원,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정도, 전 배우자(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 여부 등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계층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결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계층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이 길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대부분 이혼 후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 및 심리적으로 안정화 되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선행연구결과(서지영, 2002; 주소희, 2003)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계층이 평균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와 유아는 이혼으로 인

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레질리언스 측면(Kelly, 2000)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주변 사회의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더욱 통제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주변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층에서는 학대 및 방임이 감소하게 나타나고 차상위 층과 차상위 이상 계층에서는 학대와 어머니의 우울 및 알코올 의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의 도움, 양육관련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실질적 경제관련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이러한 지원이 생존과 관련되어 절실하게 필요한 빈곤층 어머니와 유아의 정신건강과 모-자녀관계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빈곤계층 가정 부모와 자녀의 소외감과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McLoyd, 1990; Werner & Smith, 1992).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관점보다는 주변의 사회적 관점과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자아에 더 가치를 두는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본인과 자녀 관련 사회네트워크(예; 어머니의 직장, 자녀의 학교, 학원 등)에 이혼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과정이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자존감이나 사회적 자아의 수치

감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쳐 우울과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상위 및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전 배우자인 비양육자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지 유무의 경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상위 이상 계층의 경우 흥미롭게도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및 알코올 의존, 학대와 방임 등 유아와 어머니 정신건강, 모-자녀관계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전 배우자가 자녀와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경우 문제행동과 분리불안, 어머니의 우울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차상위 이상 계층에서는 오히려 유아의 문제행동과 분리불안, 어머니의 우울과 알코올 의존, 학대와 방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이상의 결과 중 우선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 결핍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증된 Amato와 Keith(1991)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이 줄어들고 자녀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객

관적인 양육비 지급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이혼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이종한, 이윤희, 2000)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여성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훈구, 2004).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전 배우자의 경제적 원조와 자녀를 만나 양육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차상위 이상 계층 어머니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원수기간이 되어 비양육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자체가 자녀에게 더 혼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단절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상층 이혼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이 이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제 1순위가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 및 관계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한샘과 전명희(2003)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있어,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을지라도 친권이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 입학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친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배경에서 심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배우자와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어머니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어머니의 우울, 알코올 의존, 학대와 방임 등 전반적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양육자인 아버지와의 만남

실감과 만남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혼란을 목격하는 유아 또한 문제행동과 분리불안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 이상 계층을 위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인 유아의 아버지와의 만남과 관련된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다루고, 실제로 만남을 계획하고 만나는 전 후 시기에 어머니와 자녀 모두 이혼과정을 재경험하거나 심리적인 혼란을 심하게 겪지 않도록 돕는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실시하여 제공한 어머니 보고용 애착관련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보고의 제한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관찰 측정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실제 이혼 후 이러한 유아와 어머니 정신건강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측면은 살펴보기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대상의 일부라도 종단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 및 어머니의 정신건강 변인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중 어머니 양육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으나, 이혼 후 아버지가 홀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 한부모 가

정, 부모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여 조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조손가정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 아버지, 조부모의 정신건강도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한 전국 규모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중 한부모 가정을 선별하여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4단계 가중치 산정단계(보건복지가족부, 2009)에 의한 표집의 대표성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각 유형별로 면밀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제공된 다양한 정보들이 각 계층 유형별로 한부모 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문혁준 (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아동학회지*, 22(1), 35-50.
- 박경자, 최혜영, 한준아 (2009). 이혼 가족 아동. - 한국아동의 현재와 미래 -, *한국아동학회*, 91-93.
- 박한샘, 전명희 (2003). 이혼부모의 자녀양육관련 상담분석: 사이버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1(1), 137-151.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 실태조사 보고서.
- 서지영 (2002).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의진, 이경숙, 정석진, 홍현주 (2003). 한국 애착장애 아동의 발달 및 임상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55-174.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유경희, 김기중 (200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03-119.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6), 191-203.
-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 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 이경숙, 강현주, 이선우 (2005). 이혼 후 편모 양육 아동과 일반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가족지각, 문제행동, 성격.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90-91.
- 이경숙, 정영숙, 박진아 (2005). 저소득층 이혼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38-339.
- 이경숙, 진미경, 정영숙 (2007). 저소득층 이혼 여성의 성인애착과 아동기 경험비교: 이혼 경험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2), 137-153.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4(1), 181-192.
- 이영문, 김홍모, 이문숙, 이호영 (1999).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 건강 수준, 신경정신의학지, 38(6), 1234-1244.
- 이중환, 이윤희 (2000).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59-83.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47-53.
- 정지연, 한유진 (2007).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91-504.
- 조경미, 주혜주 (2003). 이혼가정 청소년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4), 543-551.
- 주소희 (2003).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 김은미, 차영란 (2006). 이혼 사유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27-244.
- 최혜영 (2009). 이혼가족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5-148.
- 통계청 (2009). 2008년 이혼 통계결과. 대전: 통계청.
- Ainsworth, M. D. S., Bleary, M. C., & Water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Blennow, I. P., & Neil, T. F. (1981).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relation to gender, birth order, and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710-714.
- Bowlby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s 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87-119). Chicago Press.
- Gove, W. R., Carolyn, B. S., & Michael, H. (1990). The effect of marriage on the well-being of adults. *Journal of Family*, 11, 4-35.
- Gucciardi, E., Celasun, N., & Stewart, D. E. (2004). Single-mother famili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1), 70-74.
- Kelly, J. E.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3.
- Kurdek, L.,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26.
- Osborn, A. F. (1990). Resili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achieving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2, 23-47.
- Ventura, J. N., & Stevenson, M. B. (1986). Relation of mother's and father's reports of infant temperament, par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Merrill-Palmer Quarterly*, 32, 275-289.
- Wallerstein, J. S. (1985). The overburdened child: Some long-term consequences of divorce. *Social Work*, 30, 116-123.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Zeanah, C. H., & Boris, N. (2000). Disturbances and Disorders of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In C. H. Zeanah(Eds.),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353-36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Zeanah, C. H., Benoit, D. & Barton, M. (1986). *Working Model of the Child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Brown University.

1 차원고접수 : 2009. 11. 8.

심사통과접수 : 2009. 12. 2.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6.

## **Mental Health Study of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n Divorced Families**

**Jin-Ah Park**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reschooler's and their divorced mother's mental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 that are 6149 poverty, 17699 latent poverty, and 17931 middle clas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in middle class showed mor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mothers in poverty are most depressed. Second, mothers in middle class were more abusive in parenting and their children showed more separation anxiety. Preschoolers in poverty and latent poverty showed no reactions in separation and reunion episode with their mothers. Third, the length of mother's rearing their child after divorce was nega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and their mother's depression.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abusive parenting in poverty.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depression in middle class. Economic support from ex-husband and the meeting between ex-husband and preschool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 and mother's depression in middle class.

*Key words* : mental health, preschooler, divorce, SES, mother-child relationship, abuse